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미술과 교육
제21집 4호 2020

미술과 교육 제21집 4호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발행처: KoSEA(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편집위원장(Chief Editor):

이재영 (Jae-Young Lee) 한국교원대학교

편집위원(Editorial board):

김미남 (Mi-Nam Kim) 한양대학교

김형숙 (Hyung-Sook Kim) 서울대학교

박정애 (Jeong-Ae Park) 공주교육대학교

백경미 (Kyong-Mi Paek) UNIST

안인기 (In-Kee Ahn) 춘천교육대학교

Dennis Atkinson Goldsmiths College, London University, UK

Graeme Sulliva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Jan Jagodzinski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Jeff Adams University of Chester, UK

Karen Keifer-Boy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Rita Irwi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Ryan Shin University of Arizona, USA

자문위원

Brent Wils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John Steers General Secretary, NSEAD, UK

Rachel Mason University of Roehampton, UK

인쇄처: 진흥인쇄랜드

본 출판물의 저작권과 출판권은 KoSEA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저술에 실린 저자들의 개인적인 연구와 연구결과의 내용에 대한 변형, 무단 전재, 복사를 절대 금합니다.

© 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2020

All rights reserved. Apart from fair dealing for the purposes of research or criticism as permitted under the Copyright Law, this publication may not be reproduced,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KoSEA.

“이 학술지는 2019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

미술과 교육

第 21 輯 4號

차례

편집서문

이재영

논 문

안인기

사진 수업을 위한 들뢰즈 읽기와 새로운 시각문화교육 되기 1

김예림

음악을 활용한 미술수업 사례 연구: 정동(affect) 개념을 중심으로 23

박정애

삶의 조건으로서의 문화와 미술교육 연구 45

이현민 · 최유미

예술가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사례 연구:
미술 영재교육을 받은 예술가 사례를 중심으로 69

이재영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연구:
미술가의 삶과 미술작품의 관계 탐색을 중심으로 89

유재봉 · 유승민

예술을 통한 인성수업 모델 개발:
가면 만들기를 통한 중학생의 페르소나 인식 113

정혜연

미술 교과서로 이해하는 북한 미술교육 137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Vol. 21, No. 4

Contents

Editorial

Jae-Young Lee

Papers

In-Kee Ahn

Teaching Photography with Deleuzian Position and Becoming
Creative Visual Culture Education 1

Yea-Lim Kim

A Case Study of an Art Class Based on Music:
Focusing on the Concept of Affect 23

Jeong-Ae Park

Culture as the Understanding of Life Condition and Research in
Art Education 45

Hyun-Min Lee · Yoo-Mi Choi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rtist's Identity:
Focused on the Cases of Artists with Art Gifted Education 69

Jae-Young Lee

Life Value Centered Appreciation of Art:
Relationship between Artists' Life and Their Artworks 89

Jae-Bong Yoo · Seung-Min Yoo

Developing a Character Education Class through Art:
Persona Perce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Creating Masks 113

Hye-Youn Chung

Understanding North Korean Art Education through Art Textbooks 137

편집서문:

이재영

편집위원장

『미술과 교육』 21집 4호는 “**친숙함과 또 다른 낯설음**”을 키워드로 엮어 보았다. 새로운 학문적 논의를 이끌기 위해 최근 우리 학회지는 들뢰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변의 확대에 의해 하나의 친숙함도 느껴질 수 있는 연구 주제로 와 닿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연구는 이런 친숙함과 낯설게 하기의 끊임없는 순환이 아닐까 생각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들뢰즈 이론의 접목은 좋은 자극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영재교육, 삶과 미술, 예술과 인성, 특히 북한 미술교육이라는 친숙함과 낯설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호를 편집하며 상당한 고뇌에 빠졌음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전체 구성을 생각할 때 안인기와 김예림의 논문을 우선 배치하였지만, 단일 논문이 논의하고 있는 학문적 방대함과 포괄성을 생각하면 세 번째 배치한 박정애의 논문도 권두 논문 못지않은 놀라운 연구자의 혜안을 보여준다. 전체 편집의 흐름을 위해 임의적으로 현재 순위를 선택한 것이지 결코 각 논문에 대한 평가 순위를 뜻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필요에 따라서는 박정애의 논문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또 다른 읽기의 즐거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좋은 논문을 두고 순서를 부득이하게 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양질의 논문을 많이 수록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독자들에게 혜택이 되리라 생각한다. 독자들이 순서 배정으로 인해 개별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단편적이고 편협한 평가와 인식을 절대 갖지 말았으면 한다.

안인기의 논문 “**사진 수업을 위한 들뢰즈 읽기와 새로운 시각문화교육 되기**”는 시각중심성이 요구되는 시각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지적하며 기존의 경직된 교육 방식의 변화를 주장한다. 특히 들뢰즈의 관점에 착안하여 시각문화교육은 언어 중심적 교육을 넘어 우연과 예측불가능한 생각과 창조를 지향하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사진 교육에서 학습자의 신체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정동에 대한 인식이 주요 관건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뒷받침한다.

김예림의 논문 “**음악을 활용한 미술수업 사례 연구: 정동(affect) 개념을 중심으로**”는 친숙해진 들뢰즈의 정동 개념을 주요 논의로 다룬다. 특히 음악을 정동으로 이해하고 미술제작에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는 사례연구이다. 순수기억의 상기 작용으로 음악은 정동으로서 새로운 의미 생성을 도우며 미술 수업에 새로운 창의적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정애의 논문 **“삶의 조건으로서의 문화와 미술교육 연구”**는 삶과 문화의 지평을 미술교육적으로 바라본 근간의 미술교육 이론을 포괄적으로 안내한다. 계몽주의 시대부터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들뢰즈와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해까지 연결되는 삶, 문화, 미술의 논리를 창의적 시선으로 설명하는 그녀의 안목은 미술교육사에 대한 포괄적 이해뿐만 아니라 미술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안목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삶, 문화, 미술의 접점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독자들은 분명 이 글을 좋아할 것이다.

이현민과 최유미의 논문 **“예술가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사례 연구: 미술 영재교육을 받은 예술가 사례를 중심으로”**는 영재교육과 예술가의 정체성 형성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탐구한 질적연구이다. 눈여겨 살펴볼 부분은 단순히 두 요인간의 인과 관계를 넘어 삶과 예술의 밀접한 관계성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삶과 예술의 일치는 체화된 창작활동과 함께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장기간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재영의 논문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 방안 연구: 미술가의 삶과 미술작품의 관계 탐색을 중심으로”**는 삶 중심 미술 감상 학습에 대한 실제적 아이디어를 탐색한 사례 연구이다. 미술가의 삶과 미술작품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실제적인 미술 감상 학습으로 풀어보려는 의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미술을 삶, 문화, 인문으로 바라보며 학교 현장에서의 미술교육 실천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고민의 계기를 던져 주리라 생각한다.

유재봉과 유승민의 논문 **“예술을 통한 인성수업 모델 개발: 가면 만들기를 통한 중학생의 페르소나 인식”**은 예술을 통한 흥미로운 인성 수업 사례를 소개한다. 아트 프로젝트를 적용한 가면 만들기 수업이 페르소나 인식에 기여하며 학습자들의 인성 함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정혜연의 논문 **“미술 교과서로 이해하는 북한 미술교육”**은 북한의 미술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연구결과물이다. 북한 미술 교과서에 대한 분석으로 북한 미술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인이 북한 미술 교과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주요한 연구 가치를 가진 논문으로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었으면 한다.

들뢰즈에 대한 연구가 친숙해질수록 미술교육의 다양한 방면은 들뢰즈로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친숙함이 또 다른 낯설음을 활성화시키는 순간 또한 정동과 되기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술, 삶, 문화의 연결 선상에서 미술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움 또한 친숙함에서 출발한 또 학문적 일탈이 아닐까 생각된다. 영재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북한 미술교육도 우리들의 뇌리에서 언제나 새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지속되고 있음도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다음 호는 또 다른 친숙함과 낯설음을 위해 언제나 지면을 남겨두고 있도록 하겠다.